

올 예산 추경 포함 1조원 넘었다

제3차 추경예산 106억 확정...모두 1조 31억7,200만원
코로나 재난지원금 국·시비 1,400억원과 방역비 등 포함

구로구 예산이 올해 사상 첫 1조원을 첫 돌파했다.

구로구 올해 기정예산 7,530억 6,900만원에 국·시비 보조금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1,400억원과 방역비, 수해 복구비용 등에 2020년 제1차 추경 219억 4,100만원, 2차 추경 481억 5,300만원, 그리고 이번 3차 추경 106억 600만원을 합쳐 모두 1조 31억 7,2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세출예산을 보면 법정경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6억5천만원 등 10억 5,200만원, 보조사업비 희망자리사업 48억 4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14억 1,200만원 등 60억 7,800만원을, 탄력성 경비에 8억 600만원을 편성했다. 또 투자사업비로는 항동근린공원 보상비 8억원, 안양천 생태공원 유지관리 5억원, 천왕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에 3억 500



구로구 예산이 올해 사상 첫 1조원을 첫 돌파했다. 올해 기정예산 7,530억 6,900만원에 국·시비 보조금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1,400억 원과 방역비, 수해복구비 등에 2020년 제1차 추경 219억 4,100만원, 2차 추경 481억 5,300만원, 그리고 이번 3차 추경 106억 600만원을 합쳐 모두 1조 31억 7,2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사진은 구로구청 청사 전경)

만원을 편성했다.

구로구의회의는 17일 예결특위에 서 구로구 집행부가 제출한 3차 추경 106억 600만원을 통과 시켜 18일 2차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한편 구로구의 지난 5년간 예산을 보면 ▲2015년 4,819억 9,100만원 ▲2016년 5,396억 8,700만원 ▲2017년 5,931억 400만원 ▲2018년 6,472억 7,300만원 ▲2019년 7,530억 6,900만원으로 매년 500억~1천여 억원이 상승했으나 올해 국·시비 보조금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등과 3차례의 추경을 통해

급증했다.

올해 세외 수입은 코로나19 관련 체육시설 운영 제한으로 수입금이 줄고 도로 사용료 감액 등으로 52억 5,800만원이 감소했다.

구청 예산 관계자는 "구로구의 예산 1조원 돌파는 타 구청에서도 비슷한 상황여서 서울 25개 구청 중 예산 규모는 11~12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정자립도는 22.2%로 서울 25개 구청중 17위이며, 인구 규모로는 외국국적 동포 포함 모두 46만여명으로 10번째다.

(채홍길 기자)

추석 대비 분야별 특별대책 마련

"방역·응급 진료·교통·청소·재난대비 등 만전"

29~10월 5일 종합상황실 운영

구로구가 추석 연휴를 대비해 ▲재난안전 ▲교통 ▲의료 ▲청소 ▲물가안정 ▲훈훈한 명절보내기 ▲공직기강 확립 등 각 분야별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구는 "방역수칙 점검과 비대면으로 지원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방역활동 강화, 대중교통 증편, 주차 단속 완화, 청소, 태풍 등 재난대비 활동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9일부터 10월5일까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재난안전대책: 사건,사고 및 화재 등 재난상황 사전예방 및 코로나19 비상근무를 유지하고 주요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 점검과 추석 연휴 집중호우 대비 비상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교통대책: 29일 오후 6시부터 10월5일 오전 9시까지 교통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귀성·귀경길 교통 편의를 위해 10월 2, 3일에는 8개 운수업체가 15개 노선의 마을버스를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또 명절 연휴 유동인구가 많은 구로역, 신도림역, 구로디지털단지역 일대에서 영업차량의 법규 위반에 대한 특별 단속도 실시한다. 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등과 밴

형 화물차·전세버스·자가용 등의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남구로시장, 오류시장, 개봉중앙시장, 고척근린시장, 고척프라자 주변 도로에서는 25일부터 10월5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양 끝 1개 차로에서 2시간 이내로 주·정차할 수 있다. 단 2열 주차, 도로 모퉁이 주차, 구간 외 주차 등은 단속 대상이다.

△의료대책: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보건소에 코로나19 대책본부를 설치해 비상체계를 유지한다. 선별진료소와 대책본부 10개반 22명(자택 비상대기 20명 별도) 운영한다. 또 30일부터 4일까지 보건소에 24시간 응급진료상황실을 열고 응급사고에도 대응한다.

고대구로병원, 구로성심병원 등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응급 진료 체계를 유지한다. 2개 종합병원은 상시 운영되며, 당직의료기관인 병·의원 37개소와 휴일지킴이약국 164개소는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문을 연다.

△청소대책: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청소상황실과 기동반을 운영한다.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주요 도로와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청소한다.

(2면으로 계속) (김유권 기자)



서울오늘신문

서울오늘신문을 검색 하시면 많은 기사를 보실수 있습니다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몸은 멀어도 마음만은 가까운 한가위 보내세요

구로구의회의가 꿈꾸는 최고의 가치는
46만 구로구민의 행복입니다.
우리 의회는 언제나 주민 편에서서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서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 박동웅



부의장 곽윤희



운영위원장 조미향



행정기획위원장 박종여



복지건설위원장 최숙자



의원 서호연



의원 박철성



의원 정대근



의원 김영근



의원 박평길



의원 김희서



의원 김철수



의원 이재만



의원 정형주



의원 이명숙



의원 노경숙

구로구의회 제296회 임시회 15일 개회

18일까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1건 처리

구로구의회(의장 박동웅)가 9월 15일 제29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8일까지 총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앞서 구의회는 지난 8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조미향)를 열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당초 9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진행되는 회기를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축소했다.



구로구의회가 9월 15일 제29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8일까지 총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1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구의회는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에 따라 지난 8일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제296회 임시회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 회의장 및 소회의실에 이동 가능한 비말 차단용 투명 칸막이를 설치하고 집행부 배석 인원 최소화, 입장 시 발열체크, 손소독 실시,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코로나19 방역강화에도 힘썼다.

임시회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에는 각 상임위원회 총 106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와 일반 안건심사를 처리하고 1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가 이어졌다.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한편, 제출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6건으로 ▲서울시 구로

구립 꿈의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며, 그 외 안건은 ▲서울시 구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 구일어린이집 운영사무

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다솔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명화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무지개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로구청-벤처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사랑채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로청 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시 구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 구로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5건으로, 총 21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채홍길 기자>

추석 대비 분야별 특별대책 마련

<1면에서 계속>

△물가안정대책 : 지난 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물가안정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추석 성수품인 쌀, 과일, 육류, 수산물과 이-미용료, 목욕료 개인서비스요금 등 모두 22개 품목의 가격 담합과 과다 인상 등 불공정행위를 지도 단속한다.

△훈훈한 명절 보내기 : 18일부터 29일까지 복지시설과 국가유공자, 소외계층을 방문 및 위문금 전달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어려운

이웃을 적극 지원해 훈훈한 명절을 함께한다.

△공직기강 확립 : 지난 20일부터 오는 10월4일까지 구 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구 문화재단 등 대상 현장출장 및 지문인식시스템을 활용 무단이석, 허위 및 사적 출장, 민원 방치, 근무시간중 음주, 관용차량 사적 이용, 출·퇴근시간 준수 및 초과근무 부정 확인 행위 등을 감찰한다. <김유권 기자>

김인제 시의원 '포스트코로나 대응-민생안정대책특위' 위원장 선출

'코로나19 이후 패러다임 변화 체계적 대응방안 마련할 것'

서울시의회는 지난 15일에 개최된 제297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김인제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구로4, 前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과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과 노동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코로나19 이후 도래할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위원장은 더불어 민주당 서울시의회 대표의원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뛰어난 정책 역량으로 보여준 김인제 의원이 동료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김인제 위원장은 "코로나19는 단기적인 충격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비대면 문화 확대, 무인화기술 촉진 등 사회 전 분야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 예상하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과 함께 서울시 차원에서 뉴노멀 시대에 맞는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채홍길 기자>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로생활복지연구회' 출범

박평길 대표의원 등 7명 의원 참여... 의욕적 연구활동 '시동'

구로구의회(의장 박동웅)는 지난 9월 8일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 건에 대해 활동계획·예산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구로생활복지연구회'를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로 선정했다.



했으며, 연구활동 기간 종료시점인 11월 말까지 최종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또한, 선진 생활복지 제도 및

사례연구를 통해 구로구 생활복지 선진화 및 발전방안을 연구하고, 주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복지 서비스 정책을 개발하여 구로구의 새로운 정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토론, 학습, 현장방문, 전문가 초빙 교육 등을 통해 의원들의 역량을 확대하여 내실 있는 연구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연구단체 대표인 박평길 의원은 "올바른 의회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 의원상호간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입법활동을 활성화하고자 단체를 구성하게 됐다"며 "짧은 기간이지만 활발한 토론과 정책연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연구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구로구의회 발전에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채홍길 기자>

'구로생활복지연구회'는 대표의원인 박평길 의원(사진)을 비롯하여 조미향, 노경숙, 김희서, 이재만, 정형주, 이명숙 의원 7명이 함께 '구로구 생활복지 정책개발 및 발전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구성

서울시의회 구로구 출신 의원 4명 상임위 이동

서울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된 가운데 구로구 출신 서울시의원들의 상임위원회도 결정됐다.

먼저 1선거구 재선의 장인홍 의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로, 2선거구 조선의 이호대 의원은 기획경제

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3선거구 재선의 황규복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지키면서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됐고, 4선거구 재선의 김인제 의원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됐다. <채홍길 기자>

9월 재산세 납부 안내

구로구가 9월 재산세 납부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납부 대상은 올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자다. 매년 7월에 주택분 1/2과 건축물분, 9월에 주택분 나머지 1/2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10월 5일까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세금납부(STAX)앱 ▲고지서 전용계좌 ▲ARS(1599-3900)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페이코, 네이버페이, 신한페이,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김유권 기자>

주간	구로오늘신문	주소: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5길 51 한성상가 B동 325호 전화: 02)830-0905 팩스: 02)830-0905 이메일: news121@empas.com
홈페이지: http://gurotoday.com 다음카페: 구로오늘신문		
회장: 유희상	발행인: 김유권	구독료: 월 5,000원: 연 50,000원
주간: 한만수	편집국장: 채홍길	기사제보: 02)830-0905
등록번호: 서울 다-5105		계좌번호: 우리은행 예금주 김유권
구독/광고문의 010-9096-1144		1002-347-55347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 합니다		

구로구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 11년 연속 수상

구로마을민주주의 축제 '공감 GURO' 호평 '2020 지역문화 활성화 분야' 최우수상

구로구가 '2020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역문화 활성화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구로구는 2010년 지방선거부문 선거공약서 분야 우수상을 받은 이래 2011년 청렴 분야 우수, 2012년 일자리공약 분야 최우수, 2013년 공약이행 분야 우수, 2014년 선거공약집 분야 최우수, 2015년 도시재생 분야 최우수, 2016년 청년문제해소 분야 우수, 2017년 지역문화 활성화 분야 최우수, 2018년 선거공약서 분야 최우수, 2019년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최우수, 시민참여·마을자치 분야 최우수 등 매니페스토 주관 각종 평가에서 올해까지 11년 연속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경기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이번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일

자리 및 고용개선, 소득격차 해소, 초고령화 대응, 기후환경, 안전자치, 지역문화 활성화, 소식지·방송 등 7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353개 사례를 응모해 이 중 172개가 1차 예선을 통과했다.

경진대회 2차 심사와 발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방식으로 지난 9, 10일 이틀간 진행됐다. 각 자치단체들이 제출한 사례 발표 영상을 심사위원들이 평가했다. 구로구는 그 결과 지역문화 활성화 분야에서 '민주주의 꽃이 피었습니다. 구로마을민주주의 축제'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구로구는 지난해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을 '마을민주주의 주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주간 민주주의 축제 '공감 GURO'를 개최했다. '민주주의 축제'를 통해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과 구청 간 협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구로구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축제기획단을 구성하고 200여차례 논의를 거쳤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 선정·진행, 홍보 등 행사 전 과정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구로의 아홉 가지 민주주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공감 GURO'는 주민들이 민주주의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구로애타마다 북면발언대, 학술토론회, 청소년공론장, 토크쇼·열린음악회, 주민과 함께 플래시몹 공모전 등 9개 프로그램들이 구로구 곳곳에서 펼쳐졌다. 특히 구청 광장에서 3일간 진행된 '구로애타마다 북면발언대'에서는 각 계각층 주민들이 북면을 쓰고 나와 구정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했다.



구로구가 '2020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역문화 활성화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구는 2010년 지방선거부문 선거공약서 분야 우수상을 받은 이래 2011년 청렴 분야 우수, 2012년 일자리공약 분야 최우수, 2013년 공약이행 분야 우수, 2014년 선거공약집 분야 최우수, 2015년 도시재생 분야 최우수, 2016년 청년문제해소 분야 우수, 2017년 지역문화 활성화 분야 최우수, 2018년 선거공약서 분야 최우수, 2019년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최우수, 시민참여·마을자치 분야 최우수 등 매니페스토 주관 각종 평가에서 올해까지 11년 연속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이성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수상을 기념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감 GURO'는 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급 조례 제정, 구로1번가 홈페이지 오픈, 민주항쟁 기념 다큐멘터리 제작 등의 성과로 이어졌다.

매니페스토 심사위원회는 '공감 GURO' 축제 전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

했다. 김현석 기획예산과장은 "공감 GURO'는 민관이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한층 더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됐다"며 "주민의 참여와 권한이 확대되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이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제100회 '안양천사랑 가족건강 걷기대회'

구민들 '환경' 살리고 '건강' 챙기며 100번 걸었다

2003년 시작...3~11월 매월 첫 일요일 아침 4km 정화활동 당초 성대한 100회 행사 준비했으나 코로나19로 계획 변경 9월 한 달간 각자 편한 시간대 안양천 방문, 스마트폰 인증 푸짐한 경품... '우수 포토상' 공모전, 과거 걷기대회 사진전도

"코로나 속에서도 역사는 계속 된다!"

구로구가 제100회 안양천사랑 가족건강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양천사랑 가족건강 걷기대회'가 100회를 맞게 됐다"며 "당초 성대한 오프라인 기념행사를 계획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온라인 인증' 방식으로 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안양천사랑 가족건강 걷기대회'는 지역 대표 하천인 안양천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주민들의 건강도 챙기자는 취지로 2003년 시작했다. 주민 2,000여명이 3~11월 첫째 주 일요일 아침에 모여 4km 코스를 걷고 환경 정화활동을 펼쳤다.

과거 오염하천의 대명사였던 안양천은 걷기대회 등 다양한 환경 개선 활동을 펼친 구로구청과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지역 주민들,

그리고 인근 지자체의 노력으로 3급수까지 회복됐다. 현재는 깨끗한 자연 환경과 체육시설이 어우러진 휴식 공간으로 변모해 많은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당초 구로구는 올해 국회의원 선거로 3·4월은 건너뛰고 5월부터 98회 대회를 개최해 7월에 100회 특별행사를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대회를 잠정 연기하고 사람이 모이지 않고도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 7월(98회) 대회를 재개했다.

9월 한 달간 진행되는 100회 걷기대회는 스마트폰으로 지정된 지점의 방문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각자 편한 시간에 안양천을 방문, '구로구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https://guro.noblapp.com)에 접



구로구가 제100회 안양천사랑 가족건강 걷기대회를 개최중이다. 구는 9월행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양천사랑 가족건강 걷기대회'가 100회를 맞게 됐다"며 "당초 성대한 오프라인 기념행사를 계획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온라인 인증' 방식으로 대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걷기대회 구간 및 측정지점(고척교~신정교)>



'안양천사랑 가족건강 걷기대회'의 역사를 기념하는 사진전. A축구장에 조성된 기념 공간에는 지난 2011~2019년 걷기대회 사진과 환경 정화활동 사진들이 전시됐다.

속한 후 지정 지점의 20m 이내를 지나면 방문이 인증된다. 지정 지점 11곳 중 7곳 이상을 돌면 완주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구로구는 100회를 기념하기 위

해 완주 상품 100개를 준비했다. 이 중 95개는 완주 인증번호를 전자 추첨해 제공하고, 나머지 5개는 '우수 포토상' 공모전을 통해 지급한다. 우수 포토상은 완주자가 안양천에서 촬영한 사진을 구청 홈페이지로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우수작을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안양천사랑 가족건강 걷기대회'의 역사를 기념하는 사진전도



9월 한 달간 진행되는 100회 걷기대회는 스마트폰으로 지정된 지점의 방문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개최된다. A축구장에 조성된 기념 공간에는 지난 2011~2019년 걷기대회 사진과 환경 정화활동 사진들이 전시된다.

김정웅 환경과장은 "100회 '안양천사랑 가족건강 걷기대회'를 통해 안양천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자랑스러운 변화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야외에서 진행되는 행사지만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추석맞이 온라인 직거래장터’ 운영

구청 홈페이지 지자체 10곳 특산품 10~20% 할인 판매

관내 전통시장 온라인쇼핑몰 진출도 지원

구로구가 추석에 맞아 온라인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

구는 “매년 추석을 앞두고 구청 광장에서 개최하던 직거래장터를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한다”며 “지역 주민들에게 우수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코로나19와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



구로구가 매년 추석을 앞두고 구청 광장에서 개최하던 직거래장터를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한다. <사진은 구로구홈페이지>

가의 매출 증대도 돕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구로구는 구 홈페이지 한편에 ‘온라인 직거래장터’ 페이지를 개설했다.

‘온라인 직거래장터’에는 충북 괴산군, 경북 예천군, 강원 영월군, 전남 해남군, 충북 단양군, 전북 남원시 등 6곳의 자매도시를

비롯해 총 10곳의 자치단체 농가들이 참여한다. 과일, 한우, 수산물, 잡곡류 등 지역 특산품을 18일까지 시중가보다 10~2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한편, 구로구는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관내 전통시장의 온라인 판로 확보도 지원한다. 온라인 판매에 익숙지 않은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온라인쇼핑몰을 보

유한 케이블방송사 딜라이브와 관내 전통시장 3곳(구로시장, 가리봉시장, 고척근린시장)의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협약에 따라 상인들은 상품 등록과 포장을 맡고 딜라이브는 쇼핑몰홈페이지, 주문 등을 관리한다. 물품 배송은 택배업체를 이용한다.

이를 통해 상인은 상품 홍보, 배달 등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덜고, 고객은 직접 시장에 가지 않고도 원하는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판매 촉진을 위해 18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 장터달구미’ 행사도 진행한다. 고객이 온라인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후기를 남기면 우수 후기를 선정해 상품권을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김한수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온라인 행사로 농가들과 상인들의 매출이 증대되길 기대한다”며 “코로나 시대에 맞춰 관내 소상공인들이 판로를 다각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전통시장 ‘추석맞이 명절 이벤트’ 연다

남구로시장 등 경품 및 빅할인행사, 온라인 판매 등

남구로시장을 비롯, 구로 관내 주요 전통시장에서는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 추석 명절 이벤트를 개최한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수칙 이행 철저와

함께 예년과 같이 인파가 몰리는 노래자랑 등 문화행사는 개최하지 않고 각 시장별로 경품 행사와 농수축산물,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빅할인행사, 제로페이 우대, 온라인 판매로 고객을 맞는다.



남구로시장을 비롯, 관내 주요 전통시장에서는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 추석 명절 이벤트를 개최한다. <사진은 대표적 전통시장인 남구로시장>

남구로시장, 구로시장, 고척근린시장, 가리봉시장, 고척골목상점가, 오류시장 등 6개 전통시장에서는 각 시장별로 14일부터 29일까지 경품행사 및 빅할인행사를 벌인다. <김유권 기자>

신도림동 기아오토점·자원봉사캠프·새마을지도자협의회

‘코로나19’ 속 이어지는 ‘나눔의 손길’

코로나19와 태풍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분들을 위한 기부의 손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14일 신도림동 기아오토점 구로점 주변호 대표(주민자치위원)는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큰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하는 마음”에서 동주민센터에 마스크 500장을 기부했다.

이에 신상익 신도림동 동장은 “추 대표님께 감사하다”며 “어르신 일자리 및 희망 일자리 참여자 분들이 현장에서 거리청소 등 코로나19에 취약할 수 있다”면서 이분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신도림동 자원봉사캠프(캠프장 서춘희)에서도 저소득층 분들에게 마스크 목걸이 및 천연비누 등을 직접 만들



9월14일 신도림동 기아오토점 구로점 주변호 대표(사진 오른쪽)가 신상익 동장에게 마스크 500장을 기부하고 있다.

어서 배부했으며, 신도림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문재웅)에서는 9월 16일 코로나로 쓸쓸해진 골목길 등에 노랑 국화꽃을 식재해 조금이나마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기도 했다. <채홍길 기자>

구로 ‘서울형 안심식당’ 지정한다

종사자 마스크 착용, 덜어먹기 등 방역수칙 준수업소 대상

구로구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형 안심식당’을 지정한다.

‘서울형 안심식당’ 지정대상은 ▲종사자 올바른 마스크 착용 ▲종사자 발열·호흡기 증상 확인

▲개인 음식 덜어먹기 ▲음식점 소독·환기 ▲공용 수저통·양념통 치우기 ▲식사공간 휴지통 비치 ▲방역관리자 지정 등 7대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음식점이다.

안심식당 지정을 원하는 업소는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보건소 위생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안심식당에는 인증 스티커와 함께 마스크, 손 소독 티슈 등 최대 15만원 상당의 방역물품이 지원된다.

구로구는 코로나19 종식까지 안심식당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수시 점검할 계획이다.

문의) 구보건소 위생과 860-3233. <김유권 기자>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명절 되세요”

올 추석 성수품은 ‘남구로시장’ 에서 장만하세요



제수용품 싸게 팝니다



지난 8월 31일 열린 남구로시장 고객휴식처인 '구구쉼터' 개소식

올해 들어 ‘코로나19’로 가장 어렵고 힘들 날들을 슬기롭게 지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남구로시장에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추석, 구민여러분들의 즐거운 명절이 되시길 ‘남구로시장 상인회’ 일동은 함께 기원 드립니다

남구로시장 상인회 회장 이희술 외 회원 일동

자가격리·집콕 중 '비만과 거리두기' 단계 강화

자가격리자 대상 운동 QR코드 배포, 교구도 전달 외출 못하는 주민위해 월별로 운동영상 제작 제공



구로구가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줄어드는 주민들을 위해 집콕 생활 중 비만과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키로 하고 자가격리 주민을 대상으로 실내 운동 키트를 제공한다.

구로구가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줄어드는 주민들을 위해 '집콕 생활 중 비만과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했다.

먼저 구로구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주민을 대상으로 실내 운동 키트를 제공한다. 키트에는 신체활동 관련 수칙과 운동교구(라텍스 밴드) 등이 들어있다. 자가격리자들

은 관련 수칙을 준수하고, 교구를 활용해 구 보건소 전문 운동사가 촬영한 운동영상을 따라하면 된다. 영상은 QR코드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구로구는 11월까지 키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가격리자들을 대상으로 '비만과 거리두기' 이벤트도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이는 카카오톡 채널 '구로구보건소 신체활동으로 비만예방하기' 채팅창에 운동참여 사진이나 개인 SNS 홍보 내용을 올리면 된다.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기념품을 증정한다.

구로구는 2주간의 자가격리자 프로그램과 별도로 사회적 거리두

기 강화에 따라 집콕 생활 중인 주민들을 위해 언택트 신체활동 영상도 제공한다. 네이버 밴드 '코로나NO-건강에브리데이'에 가입하면 무료로 영상을 보며 홈트레이닝을 할 수 있다. 구로구보건소 전문 운동처방사가 월별로 다양한 운동 영상을 제작해 업로드한다. 양방향 소통 댓글 서비스와 각종 건강정보도 제공한다.

균형 잡힌 식단을 유도하고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매달 20명을 선발해 '집콕·저염COOK'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각 가정의 집밥 염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저염식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실시간 피드백도 제공한다.

10월 5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하는 10월 프로그램을 위해 만 20세 이상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25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참여자에게는 식습관 평가 후 염도계, 전자저울, 계량컵 등을 제공한다. 참여를 원하는 이는 구로구 G벨리보 건진소(02-860-8173)로 문의하면 된다. <김유권 기자>

유희상의 열린 칼럼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하는 법이다. 자전거 타기도 힘이 남아돈다고 해서 있는 힘을 다해 페달을 돌리면 빨리 같지는 모르지만 멀리는 갈 수가 없다. 물론 행복이라는 것이 반드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패기 넘치는 젊은이들이 하는 말로 '인생은 짧고 굵게'가 나름대로 인생을 멋있게 즐기는 법이기도 모른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그들의 의식은 평범한 모자 관계이다. 70세 노인을 막내라고 부른다고 해서 뭐 한말로 노망이 든 것은 아니다. 아들이 90세가 되도 어머니의 눈에는 막내는 막내 일

자전거 타기 ㉔

103세의 할머니가 70대 아들과 살고 있었다. 70대 아들은 문 밖을 나가면 어른 취급을 받고 살지만, 집 안에서는 막내 아들에 불과했다. 할머니의 이웃들이나 동네 사람들은 103세면 장수를 하셨으니 오늘 밤에 돌아가셔도 후회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한다. 행여 주무시는 중에 돌아가시게 될지도 모른다는 염려에 함께 잠을 자는 70세 아들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며 지극을 다해 효과를 한다.

뿐이다. 바꿔 말하면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어머니의 눈에는 작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들이 일 뿐일 것이다. 인생이라는 자전거를 타는 것도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상황이 갑자기 안 좋아지지 않거나, 절망적인 일이 생겼다고 해도 초심을 잃지 않으면 빠져 나올 지혜가 생긴다. 어떠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초심은 뿌리가 된다. 초심을 잃지 않으면 뿌리가 깊게 박혀서 어려운 일에도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본지 회장>

시설관리공단, 코로나19 극복 홈트레이닝 영상 제작 공개

구민 건강·면역력 증진 위한 홈트레이닝 서비스 제공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환)은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4회에 걸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홈트레이닝 영상을 공개했다.<사진>

이는 한 여름 휴가철,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범국민적으로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가운

데, 구민들이 가정에서도 외출 제한에 따른 답답함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면역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준비한 공단의 비대면 서비스이다.

이를 위해 공단의 구로구민체육센터에서는 홈트레이닝 각 종목의 라이선스와 경력을 보유한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집에서 부상위험



없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또한 지역경제가 침체된 상황을 고려, 구민의 세금을 절약하고자 기획부터 촬영, 편집 등 영상제작 과정 전반에서 별도 예산없이 자체 역량으로만 제

작했다. 공단 유영환이사장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는 구민 모두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공단의 경영 이념 중 '구민의 생활문화 및 사회적가치 창출'의 미션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구민의 불편함과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공단만의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여 사회적 책

임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의 비대면 홈트레이닝 영상은 서킷핏과 요가 종목이 제작 완료되었으며, 향후 필라테스 등 종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게시된 영상은 공단 홈페이지(<https://www.gurosisul.or.kr/>) 공지사항 게시판 또는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 →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홍길 기자>

www.songlimga.com

함께 있어 좋은 날엔 더 좋은 곳에

사랑하는 가족과 맛있는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행복한 공간

정성 그리고 맛
음식점의 성패는 고객에 대한 마음가짐, 인생의 레시피는 '사람과 함께 하는 여정'

정직 그리고 멋
진심이라는 빛과 물을 줄 때 마음은 비로소 색을 띄우고 열매를 맺는다

성실의 향기
소나무도 5년이 되어 뿌리를 내리듯, 기다림을 통한 '행복한 향기'를 나누는 사람

풍미가 담긴 肉의 名家

송림가 예약문의 02.2066.6000

정통의 맛을 담은 宗食 名家

실크로드 예약문의 02.2066.6100

“검정고시 합격, 중도입국청소년 꿈도 합격”

서울온드림교육센터 2020년도 검정고시 20명 합격

현대차 정몽구 재단과 서울시가 지원하고 (사)두드림글로벌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기관인 서울온드림교육센터(센터장 김수영)가 2020년 1·2회 검정고시 시험에 총 20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밝혔다.

각 회차별로는 1회 10명, 2회 10명이 합격했고, 학력별로는 초졸 학력 6명, 중졸 학력 9명, 고졸 학력 5명이 최종 합격했다.

이번 제1회, 제2회 검정고시를 통해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 학력을 취득한 유스티나(이집트 출신) 학생은 “한국에 와서 꿈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한국에서 대학교까지 진학하는 것이 목적이다”며 합격 소감을 밝혔다.

서울온드림교육센터 김수영 센터장은 “코로나 때문에 대면교육



서울온드림교육센터가 2020년 1·2회 검정고시 시험에 초·중·고 졸업 검정고시에 총 20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사진은 합격증서>

을 지속할 수 없어 온라인으로 교육을 했는데도 도전한 학생들이 좋은 성과를 냈다. 꿈을 향한 학생들의 절실함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교육 대상은 15세 이상 23세 미만의 공교육을 받고 있지 않

은 중도입국청소년으로 한국어 중급 수준 이상이면 참여할 수 있다. ‘모두다학교’ 학생에게는 교육비 및 교재, 중식이 무료로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070-7712-7192로 문의하면 된다.

<김유권 기자>

구로구의회 조미향 의원, 구로경찰서장 감사장 받아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지원 유공

구로구의회 조미향 의원이 지난 16일 이병귀 구로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조미향 의원은 평소 경찰 행정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로 지역 안



구로구의회 조미향 의원이 지난 16일 이병귀 구로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전과 치안유지에 기여해 왔을 뿐 아니라 특히 구로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의 독립 공간 확보와 전담 인력 배치 요구 등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받게 됐다.

그동안 조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폭력, 아동 학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위기가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전용 공간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구로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

터는 구로경찰서와 협업체정폭력·학대 피해가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곳으로, 지난 2018년 10월 구로구청 복지 지정책과 내에 설치하여 운영해 오다 현재는 구로구민회관 2층 일부를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조미향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폭력이 더욱 증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루 속히 독립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노력하겠다”며 “지역사회 내 촘촘한 복지 안전망이 강화되고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때까지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유권 기자>

‘양성평등 콘텐츠 공모전’ 28일까지 개최

‘일상 속 양성평등’ 주제 영상... 인터뷰·다큐·드라마 등

구로구가 ‘양성평등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구는 “양성평등 문화에 대한 인식 제고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양성평등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일상 속의 양성평등’을 주제로 ▲내가 생각하는 양성평등이란 ▲가족, 학교, 직장 내 양성평등 실천 사례 ▲생활 속 성차별적 요소나 성별 고정관념을 양성평등한 의식으로 전환?확산할 수 있는 방법 ▲젠더 대립?갈등 문제 해결 방안 ▲잘 알려지지 않은 구로의 역사적 여성 인물에 대한 삶, 업적 ▲성별에 따른 차이를 반영한 정책 수립과 시설물 개선 필요성 ▲기타 양성평등에 관한 내용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모분야는 순수 창작물로서 동영상 형태의 콘텐츠다. 인터뷰, 다큐멘터리, 드라마, 뮤직비디오 등

형식에 제한이 없다.

관내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4인 이내 팀 단위로 응모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이는 직접 제작한 영상파일과 신청서를 담당자 이메일(jimbabu@guro.go.kr)로 송부하거나, 구청 여성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이달 21일부터 28일까지며, 마감일 오후 6시 도착분까지 유효하다. 신청서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구로구는 주제 적합성, 작품성, 창의성 등을 평가해 우수작품 10개를 선정한다. 금상 1명(팀)에게 100만원, 은상 4명(팀)에게 각 50만원, 동상 5명(팀)에게 각 20만원의 상금도 수여진다.

한편, 구로구는 양성평등주간(9월 1일~7일)을 맞아 양성평등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다. 양



성평등 실현, 여성 사회참여 확대, 인권 및 안전 강화 등 3개 분야 10명을 표창 대상으로 선정했다. 표창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의 수여식 없이 개별 전달했다.

안우영 여성정책과장은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모두가 행복한 구로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이번 공모전에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구청 여성정책과 860-2838. <채홍길 기자>

‘자살예방의 날’ 기념 비대면 캠페인 펼쳐

12월까지 주민주도형 자살예방 활동 ‘미주단’도 운영

구로구가 ‘자살예방의 날(9월 10일)’ 기념 비대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먼저 구로구는 9월 한 달간 생명존중 메시지와 자살예방 도움기관 정보 등을 담은 로고라이트를 송출한다. 송출지역은 거리공원, 안양천, 지하철역 주변 등 유동인구가 많은 9개소다.

지난 10일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정혜신 박사의 유튜브 라이브 강의를 진행했다. ‘코로나블루로 지친 그대들에게’를 주제로 우울·무기력 등 코로나블루 마음치유 방법, 충격·불안·두려움에 대처하는 자세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구 소식지에 구로다나병원 심호철 진료과장의 ‘우울증에 대한 이해와 극복 방법’ 칼럼도 게재했다.

한편, 구로구는 자살에 대한 인식개선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주민 주도형 ‘마음건강 주민교육단(이하 마주단)’을 운영한다.



구로구가 ‘자살예방의 날’ 기념 비대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구는 9월 한 달간 생명존중 메시지와 자살예방 도움기관 정보 등을 담은 로고라이트를 송출한다.

관내 주민 18명으로 구성된 ‘마주단’은 12월까지 마음건강 교육과정 이수, 독거 고위험군 방문, 온·오프라인 캠페인, 지역사회 연대 간담회 개최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채홍길 기자>

상반기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변동 78필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21일까지

구로구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의견수렴을 21일까지 실시한다.

대상 토지는 상반기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변동이 있었던 98필지다.

구청 홈페이지, 서울부동산정보

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구청 부동산정보과, 가까운 동주민센터, 일사편리통합민원(<http://kras.go.kr>)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가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원/㎡)으로 국세, 지방세, 부담금 부과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문의) 구청 부동산정보과 860-2809. <채홍길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조정

수도권 식당·카페 정상영업, 실내체육시설도 재개

9월 27일까지 2주간 적용

정부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지난 14일부터 '2단계'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음식점과 카페 등이 정상영업에 들어갔다.

14일부터 수도권의 음식점, 커피전문점, 중소형 학원 등은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키면서 정상영업 및 운영이 가능해졌다. PC방의 경우 감염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라 2단계 하에서도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오는 27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그동안 2.5단계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중소 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지자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은 셈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그동안 포장과 배달 주문만 가능했던 스타벅스와 커피빈 등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기존처럼 매장 내 영업이 재개됐다. 아울러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

점도 매장 내 음식물 섭취가 허용됐다.

다만 강화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들 업종은 매장 내에서 영업하려면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나 '테이블 간 띄어 앉기'로 매장 좌석 내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지난 2주간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 주문만 받을 수 있었지만, 방역수칙 준수 조건 아래 예전처럼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2.5단계 하에서 비대면 수업만 허용됐던 중소형 학원과 직업훈련기관의 경우도 다시 대면 수업이 가능해졌다.

운영이 중단됐던 독서실, 스타벅스, 실내체육시설 당구장, 스크린골프연습장 등도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면 문을 열 수 있다. PC

방은 고위험시설에서 아예 제외됨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 출입은 당분간 금지된다.

수도권에서 2단계 조치가 이어지면서 PC방을 제외한 고위험시설 11종의 운영은 계속 중단된다. 구체적으로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

(300인 이상) 등 11개 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되고 프로야구와 축구 등 스포츠 행사는 지금처럼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아울러 사회복지이용시설과 어린이집에 대한 휴관 및 휴원 권고가 지속되고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학교 밀집도 완화 등의 조치도 유지된다. <한만수 기자>

“코로나로 힘든 추석, 나눔으로 행복한 추석을”

29일까지 쌀·생활용품 등 접수 ... 독거어르신, 장애인 등 전달
구민들 기부 성금으로 선물꾸러미 만들어 어려운 이웃에 지원

구로구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추석맞이 나눔 행사를 펼친다.

구는 29일까지 관내 동주민센터 16곳에서 성품을 접수한다. 성품 대상은 각 가정에서 보관 중인 식품과 생활용품 등이다. 나눔 참가를 원하는 주민은 쌀·라면·통조림 등의 식품이나 비누·세제·휴지 등의 생활용품을 기부하면 된다.

기부된 물품은 구로구푸드뱅크마켓센터를 통해 독거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지역 내 어

려운 이웃에게 전달된다.

구로구는 '추석 선물 나눔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선물 꾸러미를 만들어 어려운 이웃에게 전한다.

추석 선물 꾸러미는 구민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한 성금으로 마련된다. 유과, 약과, 맛밤, 누룽지, 식혜, 과일, 전복죽, 라면 등 11종으로 구성된다.

구로구는 21일 독거어르신 등 가족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 50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채홍길 기자>

개인정보 유출 방지 '날장식 출입명부' 도입

타인 정보 볼 수 없게 구청 방문자마다 각각 명부 작성 방식



구로구가 코로나19 방역체계 확립을 위해 구청 출입자를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명부 작성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은 구청 로비에 마련된 날장식 출입명부)

구로구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날장식 출입명부'를 도입했다.

구는 "코로나19 방역체계 확립을 위해 구청 출입자를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명부 작성을 실시하고 있다"며 "수기명부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날장식 출입명부'를 마련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기존 수기명부는 한 장의 용지에 다수의 방문자가 방문 기록을 남겨 이름,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로 인해 최근 명부에서 확인한 정보로 사적인 연락을 시도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악용, 도용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

리가 높아져왔다.

이에 구로구는 방문자마다 각각의 명부를 작성하는 '날장식 출입명부'를 만들었다. 개인이 명부를 기재한 후 바로 다음 장으로 넘겨 이후 작성자나 타인이 기존 작성자의 정보를 볼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최소한의 필요 정보만 기재토록 했다. 수기명부는 철저한 관리 아래 4주 동안 보관하며, 이후 파쇄해 폐기한다.

한편 구로구는 청사 본관과 신관 입구에 열 영상 감지기를 설치해 직원과 내방객을 대상으로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있다. 입구마다 출입자 관리를 전담하는 인력도 배치하는 등 출입자 관리 강화에 힘쓰고 있다. <김유권 기자>

관내 확진자 증가 16일 하루에만 3명 발생... 모두 165명

구로구 관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주춤세가 한동안 이어 지다가 1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되자 14일 1명, 15일 1명에 16일 하루에만 3명이 발생하고 17일 1명이 또 추가, 방역 당국이 다시 긴장하고 있다.

9월17일 현재 165명으로 1주일 새 9명이 늘었다. 142명이 완치 퇴원하고 23명이 치료중이다.

구로구 165번 확진자는 고척2동 거주 66세 여성으로 164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16일 관내 선별진료소에서 검체검사를 받고 17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164번 확진자는 고척2동 거주 65세 남성으로 15일 관내 선별진료소에서 검체검사를 받고 16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163과 162번 확진자는 구로1동에 사는 60세 여성과 62세 남성으로 가족이다. 15일 관내 선별진료소에서 검체검사를 받고 당일 저녁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구로구 161번 확진자는 구로5동 거주 54세 여성으로 은평구 확진자 접촉자로 14일 관악구 선별진료소에서 검체검사를 받고 15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160번 확진자는 구로3동에 사는

70세 여성으로 14일 관내 선별진료소에서 검체검사를 받고 당일 오후에 양성 판정을 받았다.

159번 확진자는 개봉1동 거주 26세 남성으로 영등포구 확진자 접촉자로 12일 영등포구선별진료소에서 무증상 상태로 검체검사를 받고 13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158번 확진자는 구로3동에 사는 56세 남성으로 11일 타구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체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았다.

157번 확진자는 구로4동 거주 63세 여성으로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근무자로 동 병원 확진자 발생에 따라 9일 무증상 상태로 검사를 받고 10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17일 현재 구로구 관내 확진자는 165명으로 치료중 20명, 완치자 145명이며 자가격리자는 밀접접촉자 80명, 해외입국자 314명 등 모두 394명, 능동감시대상자 0명이다.

한편 구로구민의 감염경로별 확진자를 보면 구로콜센터 관련 20명, 구로1동 A아파트 관련 11명, 중국동포센터 관련 11명, 만민교회 10명,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9명, 강서구 개척교회 관련 6명, 부천시 쿠팡 관련 5명, 관악구 리치웨이 관련 5명, 보성운수 관련 4명, 해외 입국 3명, 타시군구 접촉

자 30명, 기타 50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서울시 확진자는 17일 현재 모두 4,857명으로 구청별로 보면 ▲관악구가 335명으로 가장 많고 ▲송파구 317명 ▲사랑제일교회 소재 성북구가 316명으로 3개가 300명을 넘어섰고 ▲노원구 289명 ▲강서구 259명 ▲강남구 242명 ▲은평구 235명 ▲동작구 210명으로 8개구가 200명을 넘어섰다. 또 ▲강동구 180명 ▲종로구 178명 ▲서초구 177명 ▲영등포구 172명 ▲양천구 168명 ▲구로구 165명 ▲도봉구 163명 ▲마포구 151명 ▲동대문구 141명 ▲강북구 141명 ▲광진구 121명 ▲서대문구 121명 ▲용산구 113명 ▲성동구 110명으로 모두 22개구가 100명이 넘었다. 이어 ▲금천구 84명 ▲중로구 84명 ▲중구 55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채홍길 기자>

구일역 인근 공터서 화재...노숙자 1명 사망

지난 6일 오전 5시 30분께 1호선 구일역 1번 출구쪽 바깥 공터에서 화재가 발생, 현장에 있던 노숙자 1명이 사망하고 구일역사 외벽이 검게 그을렸다. 화재는 50

여분 만에 진화됐다.

구로소방서에 따르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노숙자는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자는 노숙

자로 추정되지만, 신원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장소 주변에 쓰레기가 널브러진 상태였고 '펑' 하는 소리가 수차례 들리며 불이 났다는 행인의 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채홍길 기자>

김익진 시인 시집 '사람의 만남으로 하늘엔 구멍이 나고' 출간

무릉도원의 한 부분을 자세히 본 적 있다.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바위 사이에 아주 조금 열린 문.

이 문은 최대한 어깨를 움츠리고 몸의 사이즈를 작게 만들라고 요구 했었다. 문이라기보다는 구멍이란 표현이 적당하다. 그런데 이 구멍을 간신히 통과하면 호수, 기암괴석 등등 경이로운 광경이 펼쳐진다. 한마디로 감탄사가 절로 터져 나온다.

두 눈이 휘둥그레지고 금방 들어온 입구처럼 입이 딱 벌어져 한 동안 입술이 경직된, 그런 기억. 이러한 잊지 못할 기억이 오늘 하나 더 추가되었다. 김익진 시인의 시집 '사람의 만남으로 하늘엔 구멍이 나고'를 받고.

이 시집은 일반 시인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이 자주 등장한다. 아니 시의 제재(題材)가 된 다라고 정정해서 표현하는 것이



맞았다.

빛은 파장, 우주는 양성자와 중성자 등등 깊이 읽지 않으면 난해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시를 음미하면서 정독하다보면 아! 하고 머리를 한방 맞은 느낌이다.

어떤 시는 밥 먹듯이 편안하게 읽고 또 어떤 시는 자세를 바로 하고 단어 하나하나가 주는 의미를 되새기며 읽어야 읽히는 시가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김익진 시인의 시는 후자에 속한다.

군더더기 없고 깔끔하나 두세 번 읽어야 더 제대로 읽힌다.

모래 한 알이/ 별을 잡고 있다/ 모래 골물은/ 별의 무게를 알고 있다/ 그들은 상호작용을 한다// 체 거름 파도/ 물결무늬 가장자리 에/ 한 골물이 사라지면/ 해변이 달라진다/ 가장자리가 접히고/ 바다가 무너진다// 모래 한 알에 우주가 바뀐다 시 [관계 전문]

'모래 한 알에 우주가 바뀐다' 마지막 연을 위해 시인은 밤새 끄적거리며 시를 낳았을 것이라고 짐작해 본다. 여기서 말하는 우주는 마음이거나 사랑이거나 밥이거나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파동으로 우주가 바뀐다. 우주가 그녀라면 사랑이라면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하루에도 수 십 번씩 지구가 흔들린다. 시 어느 부분에서도 특별한 기교를 부렸다는 흔적은 없다. 그러나 시에서의 의미는 아주 미묘하고 깊다. 독자가 숨 가쁜 호흡으로 읽어야 하는 불편함도 없다. 감성과 지성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수십 년 동안 쌓인 것들이 자연스럽게 스며져 나오는 것.

김익진 시인은 경기도 가평 출생으로 2007년 월간조선으로 등단, 시집 '회전하는 직선' '중력의 상실' '기하학적 교독' 수필 '수백억 광년의 사람' 등이 있다. 현재 한서대학교 항공신소재공학과 교수다.

최근 출간한 '사람의 만남으로 하늘엔 구멍이 나고' (쥬천년의 시작에서 출간됐다.

시인의 말처럼 "밤하늘의 별빛이 이곳으로 오는 데만 수십억 광

초대시

힘든 추석 성묘 길

송희순 (송림가·실크로드 대표)



좀처럼 잡히지 않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최악의 지역 경제 위기와 연이은 태풍 피해로 구로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재확산으로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명절기간 국민들의 이동 최소화를 당부하는 '온라인 추석 성묘'의 안내 문구가 연일 카톡으로 뜨고 있습니다

추석 대보름, 그동안 농사 지어 그 곡식으로 차례상을 차려 감사기도를 올려야 하는 뜻깊은 명절이옵니다. 올 추석에도 환한 보름달을 보겠지요

그러나 뭘 면목이 없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의 보름달처럼 환한 그 모습에는 근심과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 가슴이 메어 옵니다

성묘가는 그 길은 황금들녘이었습니다. 달빛 은빛 갈대밭이 출렁이는 그때가 떠오릅니다. 코스모스가 하늘하늘 춤을 추는 그 길이 주마등처럼 아른 거립니다. 가족들이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던 그날이 스쳐 지나갑니다

아버님, 어머님 올 추석은 죄송합니다

년이 걸리니" 시인의 가슴에서 세 (無數)하리라. <조윤주(시인) 상에 도착하지 않은 시들이 무수 구로오늘신문 객원기자>

60~65세 취업 원하시면 전화하세요

(경비/청소등 전문 무료 알선 기관)

100세 시대... 아직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고...

과연 나에게 맞는 일자리가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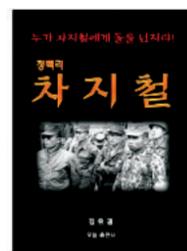
(사)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 취업센터는 60세 이상 구직을 원하시는 분에게 무료로 취업상담 및 구직 알선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지금 전화 또는 방문해 주세요.

○준비서류 : 이력서 ○접수방법 : 방문접수(월~금 09:00~17:00)

(사)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 취업센터

구로구지회 (신도림역 2번출구, 02)852-4598)

서울시 구로구 새말로 18길39, 1층



정백리 차지철

누가 차지철에게 돌을 던지랴!

김유권 지음 / 문역/사륙판 양장/ 325쪽/값12,000원/ 발행일 2013년 3월 5일



당신이 희망입니다

거창하거나 부담스럽지 않게,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구로희망복지재단과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더 쉽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작은 씨앗이 꽃을 피우고 열매 맺듯이,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 희망의 꽃을 피울 것입니다.

구로희망복지재단과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경제적 어려운 이웃을 지원합니다.

지원문의 : 구로희망복지재단 02)867-1695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102-57742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